



## 독일 인쇄산업 시장조사 보고서<4>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독일 인쇄산업 시장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독일 시장의 특성과 동향, 독일인쇄산업 현황, 주요업체 현황이 자세히 게재돼 있다. '독일 인쇄산업 시장 조사 보고서'를 연재한다.

편집부

### 1. 독일 인쇄산업 동향

#### 다. 인쇄 품목별 현황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독일 내 경제 상황의 악화는 인쇄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이러한 상황의 급작스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점점 더 영향력을 넓혀가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콘텐츠 등장과 전자책 확산은 인쇄업계에 더욱 큰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신문, 종이책, TV 등의 매체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종이책 외에도 독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변화돼 생산이 부진해지고 있다. 향후에도 종이책 수요 감소에 따른 인쇄 수주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과 잡지 인쇄는 전체 인쇄물 중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벨인쇄는 업체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로 2012년 7%를 차지했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포장 인쇄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유지 및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포장인쇄에서 컬러 및 디자인이 곧 브랜드 이미지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판매되는

제품을 처음 평가하는 것 역시 포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장 인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기준 독일 인쇄 제품별 생산량은 <표 11>과 같다.



〈표 11〉 인쇄제품별 생산량

제 품	만 유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1	2011	2010	2010
카탈로그 / 광고인쇄	5,873	4.1	-1.5	
카달로그	1,088	0.2	-4.7	
포스터	421	3.3	-0.4	
회사보고서	65	-6.6	-7.5	
기타 인쇄물	4,298	5.5	-0.6	
잡지	1,452	-7.3	-6.0	
신문 / 광고지	1,331	3.5	-7.5	
일간신문	878	4.3	-7.2	
주간신문 및 일요신문	219	12.8	2.5	
광고 및 전단지	234	-6.5	-14.7	
회사 인쇄물	1,337	2.5	-0.1	
서식용지	318	0.1	-3.7	
티켓 및 ID카드	36	-1.1	-1.6	
유가증권	983	3.4	1.3	
라벨	1,189	4.3	5.8	
달력 / 카드	137	6.0	-0.5	
그 밖의 인쇄물	1,782	3.8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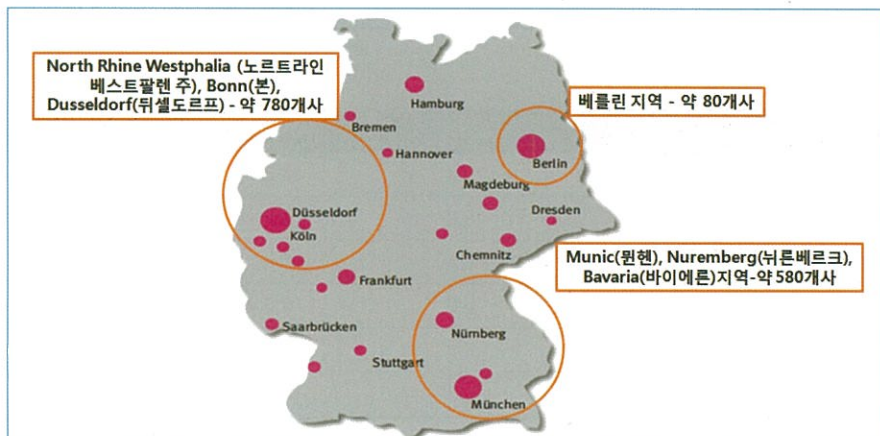
출처 : 독일인쇄산업협회(bvdm), 애뉴얼리포트 2011/2012

### 라. 독일 지역별 인쇄산업 현황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쿤텐베르크의 활동지역 마인츠를 중심으로 발달한 독일의 인쇄 기술은 무역 교역로를 따라 널리 확산돼 1464년에는 쾰른이 북서부의 인쇄 중심지로 부상했다. 한편 남쪽에서는 바젤, 뉘른베르크, 아우크스부르크 등 거대한 교역 중심 도시들이 인쇄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인쇄업은 전형적인 도시형 산업이기 때문에 독일 내 메트로폴리스 지역에 대부분 분포해 있다. 현재 독일 지역에서의 주요 인쇄 산업 중심지는 베를린, 뒤셀도르프, 뮌헨 등 총 3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1〉 독일 지역별 인쇄산업 현황



출처 : 독일인쇄산업협회(bvdm), 애뉴얼 리포트 2010/2011

특히 뒤셀도르프 지역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연방주의 수도인 뒤셀도르프와 메트만군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E.ON, Henkel, McKinsey, Mitsubishi, Metro, Qiagen, Vodafone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지역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과 연구개발 분야 등이 이 지역 경제발전의 중추적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뒤셀도르프는 독일 내 선두적인 커뮤니케이션·미디어메트로폴에 속하고 있으며 매 4년 마다 인쇄산업에서 제일 큰 전시회 드루파(Drupa)가 개최되고 있다.

베를린은 인구가 약 6백만에 이르는 광역 도시권으로 대학 및 기타 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독일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이 디지털 경제 및 통신산업과 긴밀하게 네트워크화돼 있다. 미디어, IT기술로 약 1만5000개의 기업이 연간 올리는 매출은 약 190억 유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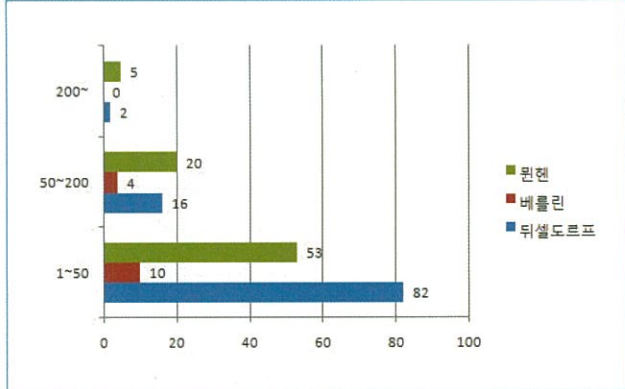
독일에서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뮌헨은 독일문학의 중심지이면서 남부 독일에서 가장 번성한 상공업 도시다.

**마. 독일 인쇄업체 종사자별 현황**

독일의 경우 피고용자 수 500명 미만 및 연매출 5천만 유로 미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독일 전체 근로자 중 8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인쇄산업은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으로, 독일에는 약 1만 여개의 (2011년 기준) 인쇄 관련업체가 있는데 그 중 90% 이상이 종사자 수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그림 22〉 주요 도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출처 : Europage (<http://www.europages.co.uk>)

인쇄업체가 대부분 소규모라 독일 지역별 인쇄업체 데이터는 없지만, 유럽 기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Europage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토대로 뮌헨, 베를린, 뒤셀도르프 지역의 종사자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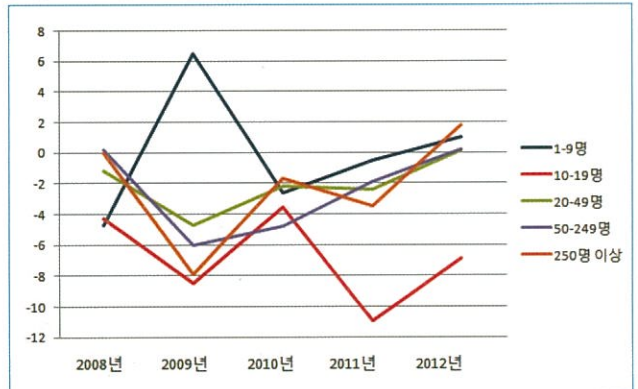
독일 인쇄업체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종업원 1~9인 이하 사업체 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것에 비해 10인 이상 사업체 수

비중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50명 이상 대규모 인쇄업체의 경우, 사업체 수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에는 답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악화돼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이뤄졌고, 전통적인 인쇄 방식으로만 매출을 내기 어려워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소폭 감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종사자별 사업체 성장률을 보면 2009년 소규모 사업장은 늘어난 반면 20인 이상 기업은 모두 하향세를 기록했다. 이후 경제침체가 끝나는 2010년부터는 이전과 반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두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3〉 2008년 ~ 2012년 종업원별 업체 성장률 (단위 : %)



출처 : Euromonitor, Printing in Germany, 2012

〈표 12〉 2007년~2012년 종사자별 업체 수 (단위 : 개)

종사자 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9명	8,655	8,261	8,802	8,571	8,529	8,618
10~19명	2,077	1,987	1,819	1,754	1,562	1,455
20~49명	818	808	770	753	735	736
50~249명	601	602	566	539	529	530
250명 이상	63	63	58	57	55	56
총 계	12,224	11,721	12,015	11,674	11,410	11,395

출처 : Euromonitor, Printing in Germany, 2012

〈표 13〉 2007년 ~ 2012년 종사자별 업체 점유율 (단위 : %)

종사자 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9명	70.9	70.5	73.3	73.4	74.8	75.6
10~19명	17.0	17.0	15.1	15.0	13.7	12.8
20~49명	6.7	6.9	6.4	6.5	6.4	6.5
50~249명	4.9	5.1	4.7	4.6	4.6	4.7
250명 이상	0.5	0.5	0.5	0.5	0.5	0.5
총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Euromonitor, Printing in Germany, 2012



〈표 14〉 2008년 ~ 2012년 종사자별 인쇄물 생산량

(단위 : 백만 유로)

종사자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9명	2,232	2,012	2,129	2,047	1,977
10~19명	2,621	1,792	1,892	1,769	1,572
20~49명	2,933	2,413	2,630	2,638	2,550
50~249명	8,274	6,343	7,048	7,169	6,902
250명 이상	6,071	4,766	5,269	5,411	5,277
총 계	22,131	17,325	18,968	19,034	18,277

출처 : Euromonitor, Printing in Germany, 2012

〈표 15〉 2008년 ~ 2012년 종사자별 인쇄물 생산 성장률

(단위 : %)

종사자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9명	-5.5	-9.8	5.8	-3.8	-3.4
10~19명	-8.4	-31.7	5.6	-6.5	-11.1
20~49명	-3.0	-17.7	9.0	0.3	-3.3
50~249명	-1.4	-23.3	11.1	1.7	-3.7
250명 이상	0.8	-21.5	10.6	2.7	-2.5
총 계	-2.3	-21.7	9.5	0.3	-4.0

출처 : Euromonitor, Printing in Germany, 2012

〈표 16〉 2008년 ~ 2012년 종사자별 인쇄물 생산 점유율

(단위 : %)

종사자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9명	10.1	11.6	11.2	10.8	10.8
10~19명	11.8	10.3	10.0	9.3	8.6
20~49명	13.3	13.9	13.9	13.9	14.0
50~249명	37.4	36.6	37.2	37.7	37.8
250명 이상	27.4	27.5	27.8	28.4	28.9
총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 Euromonitor, Printing in Germany, 2012

2012년 종사자별 인쇄물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인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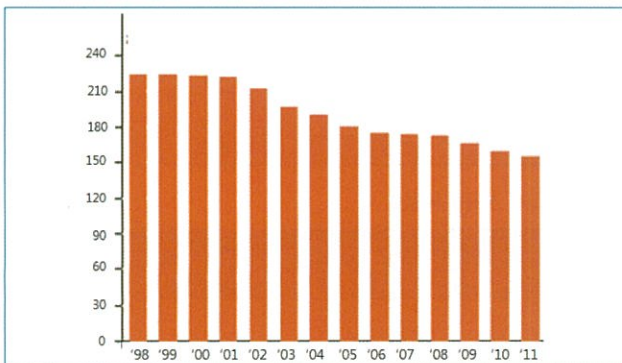
2011년에도 독일 인쇄산업의 종사자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2000년에는 22만2891명의 직원이 근무했으나, 인쇄산업이 어려워 지자 인건비 감소를 위해 6만8367명 종사자를 감원해 현재 약 15만 45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00년 대비 30.7% 감소한 것

이며, 2010년 대비 2.6% 감소한 것이다.

업체 파산 또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약 2663개사 업체가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200개 이상의 인쇄업체가 파산신청을 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5.3%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업체 파산은 독일 내 인쇄 산업 영업손실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4〉 독일 인쇄업계의 사회보험 가입의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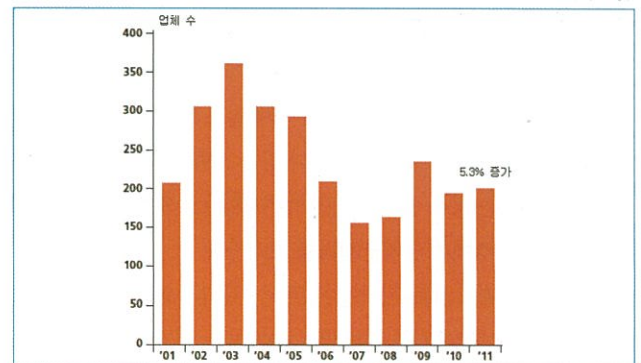
(단위 : 명)



출처 : 독일인쇄산업협회(bvdm), 매뉴얼 리포트, 2011/2012

〈그림 25〉 독일 내 파산 인쇄업체 수

(단위 : 명)



출처 : 독일인쇄산업협회(bvdm), 매뉴얼 리포트, 2011/2012